

石彦伊

아 호 : 石山
본 관 : 忠州
출 생 지 : 경남 창녕
생 년 월 일 : 1938. 8. 31

상 훈

대통령 근정포장,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표창, 달성군수 표창, 직장새마을 대구시 협의회장 표창, 체신부장관 표창패



학력 및 경력

- 창녕고등공민학교 졸업
- 창녕우체국 근무
- 현풍우체국 통신기원
- 달성전화국 근무
- 남대구전화국 근무
- 한국전기통신공사 정년 퇴임

1955년 창녕우체국 근무를 시작으로 체신 공직과 인연을 맺은 이후 23년간 국가 체신사업 발전의 선봉에서 묵묵히 직무에 정려하면서 각종 불합리한 체신 행정의 개선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신망 구축, 대민 체신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신 행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10년간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근무하면서 국가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정년 퇴임한 국가 사회 발전 유공인사이다. 아호는 '石山'이요, 본관은 명문 '忠州'로, 일제 말기 1938년 경남 창녕군 남지읍 칠현리 낙동강가에서 가난한 농부의 4남매 가운데 맏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 전쟁을 만나 온 마을이 불바다가 되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목도하고, 이후 셋방살이를 전전하며 만년신고를 겪으면서도 항상 맑고 바르며, 근면 성실한 인물로 성장하였다. '55년 17세의 어린 나이에 친지의 도움으로 창녕우체국 교환보조수로 근무하던 중 창녕고등공민학교

를 졸업하고 체신부 공무원으로 몸담아 현풍우체국 통신기원을 역임하기까지 대민 서비스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우학생 돕기 및 경로사상 고취, 지역사회 정화 및 발전에 적극 앞장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체신인상을 구현, 대통령 근정포장과 체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어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전직한 이후에도 맡은 바 직무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하고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상하 동료들의 귀감이 되었음은 물론, 직장 새마을운동의 활발한 전개 및 대민 봉사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표창과 표창패를 받은 바 있으며, 사생활에도 모범을 보여 저축 증대 및 소비절약 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달성군수 표창을 받기도 했다. 남대구전화국 근무를 끝으로 '96년 정년 퇴임하였고 가족으로는 '건강·희목·진실'의 가훈 아래 부인 辛玉堯 여사와 슬하에 鎭均(사업)·昌均(육군 소령)·慶順 2남 1녀와 5명의 손자, 2명의 외손을 두었다.